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주년에 즈음하여

2003년 현재 우리 사회는 지난 고도성장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과거에는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정책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면, 현재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나 과거와 같은 성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자활촉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갖는 특징은 빈곤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을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수급자로



姜 允 求  
보건복지부 차관

선정된 빈곤가구에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만큼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근로활동의 의무를 강조한 자활사업을 도입하였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2003년 10월 현재 약 136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보완,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주년은 기존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입당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살펴보고, 만일 그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당시 근로능력자를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소득과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취약한 상황에서 보충급여방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또한 한계세율이 100%인 상황에서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실직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 또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금번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발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실업·빈

곤문제가 심화되며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그 이유는 이 평가작업이 기초생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주년은 기존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입당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살펴보고, 만일 그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전제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금번의 평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사회의 빈곤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고,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